

2015 새 설계 안병호 함평군수

# “동함평산단 연내 분양 완료... 10만 군민시대 초석 다질 것”

“군정 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바탕으로 ‘10만 군민시대’를 열겠습니다.”

안병호 함평군수와 500여 공직자들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실에서 ‘군민의 꿈이 바람인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 건설을 군민과 함께 이뤄내자’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함평군은 지난해 민선 5기와 6기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정부와 전남도,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평가에서 24개 부문을 수상해 6억여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평가 최우수기관을 비롯해 행복마을 콘테스트 시·군 분야 2등,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평가 우수상, 부패방지 사책평가 장려상, 도로정비평가 장려상, 우수 농업기술센터 표창 등 각종 수상을 휩쓸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성과는 더욱 눈부시다. 앞으로 해상제안 대피시설 설치(133억원), 손불농·어촌 생활용수 개발(87억원),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60억원), 학교농·어촌 생활용수 개발(53억원), 반곡지구 마을하수도 정비(37억원) 등 급박한 현안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46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도서관 조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 각종 대회 유치에 본격 나선다. 유기농 생태마을 조

## 우시장 현대화로 명성 되찾기

### 5대 특화작물 육성 소득 증대

### 파충류 생태공원 관광명소로

성과 주요 곡물 기반조성, 전통식품 산업화 등에 23억15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 군수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만 군민시대’ 초석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첫 삽을 뜬 동함평 일반산단이 완공을 앞두고 37.9%의 분양률을 보여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분양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함평·학교 농공단지도 기반시설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학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도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함평의 근간이 되는 농·축·수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만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하면서 이제는 농·축·수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만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동함평 일반산단 준공 및 조기 분양
- ▲함평을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 ▲5대 특화작물 및 향토산업 육성
- ▲함평우(牛)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함평천지 음식테마거리 조성

이를 위해 10년 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목과 향토산업, 6차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단호박과 무화과, 축, 부추, 고사리를 5대 특화작물로 선정하고 군민소득 강화에 군정을 집중한다. 특히 조사로 생산전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함평 우(牛)시장을 현대화해 ‘함평 큰 소장이 전남 소값을 좌우한다’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안 군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친환경 양식사업 육성사업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어업인의 소득창출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함평천지 종합 복지관과 손불노인복지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함평 행복의 집’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운영한다.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의 2세 교육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녹색 나눔숲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계획이다. 도시가스를 더욱 확대 공급해 군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임대주택을 조속히 건립해 주택 수요부족을 해소하고,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음식 테마거리’를 음식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최초의 ‘양사·파충류 생태공원’을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문화가 있는 토요장터를 개장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용천사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호 군수는 “군민께서 바라는 함평, 제가 꿈꾸는 함평을 이루기 위해 더 멀리 내다보고 군민과 함께 가겠다”며 “올미년 새해는 군민의 꿈과 희망을 정책이 담아, 서로 힘을 합쳐 이루어내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kwangju.co.kr

## 신안 칠발도 일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바다제비·습새 등 중요 번식지 2033년까지 출입통제 등 조치

바다제비와 습새, 칼새, 바다쇠오리 등 바다새 번식지이자 동아시아 철새 이동로인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천연기념물 제332호·사진) 일원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다도에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따르면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칠발도 도서 및 해안선 기점 500m까지 주변 해역을 포함한 131만㎡이며, 지정 기간은 2033년까지이다.

보호기간 동안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제86조 2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칠발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은 바다제비와 습새, 칼새 등 바다새 중요 번식지인데다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새우말’ 서식지로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양 환경에 민감한 바다쇠오리 등 해양성 조류 보호를 위해 번식지뿐만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 해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전한 번식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칠발도는 비금도에서 북서 방향으로 10km 떨어진



등대섬으로, 현재 바다제비 1만쌍을 비롯해 바다쇠오리 3000쌍, 습새 1000쌍 등 3종류의 해양성 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해 일몰전 칠발도 반경 1km내 해상에서 바다쇠오리 4000개체를 확인했다. 다도에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장필재 해양자

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신안 다도에 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관리돼 왔던 칠발도를 주변 해역까지 포함해 폭넓게 관리함으로써 바다제비 등 철새의 안전한 번식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 영광군 ‘마이크로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시동

### 일본 방문 운영 실태 벤치마킹 새 성장동력 모델 발전안 수립

영광군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mobility)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영광군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일본 마이크로 모빌리티 운영실태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4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서 4륜 마이크로 모빌리티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동양기전(주)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클리오 등 연구개발업체가 동행했다.

김준성 군수를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일본 자동차 전문대학인 나츠(NATS)대학을 방문해 자체개발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벤치마킹하고, 이미 마이크로 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시와 사이타마시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존의 승용차와 차별화된 근·중거리 주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구동 방식의 1~2인 탑승을 위한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용도는 출·퇴근용과 농·어촌용, 업무용, 관광 레저용, 사회취약계층, 특수목적용 등 다양하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관련 회사들마다 e-모빌리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군은 이번 일본방문을 통해 추후 추진하게 될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에 적용할 정책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는 총 7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 등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관련 정부사업이 진행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e-모빌리티 지원센터가 착공될 예정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영광군 351-0055, 함평군 324-8111, 광주광역시 336-4759(군) 335-5501(시), 나주시 374-4423,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구례군 782-4696, 곡성군 362-8111, 담양군 383-8116, 장성군 394-0400,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곡),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여수시 692-0997,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해남군 537-6767,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신안군 278-8111, 남악지구 283-1540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